



TROPHY

KOREA WINE CHALLENGE 2019 AWARD WINNING WINES

TROPHY SPARKLING

Deutz Brut Classic Champagne Deutz France

TROPHY WHITE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Monte da Ravasqueira Portugal

TROPHY ROSE

Domaine Montrose Rose Domaine Montrose France

TROPHY RED

Ravasqueira Syrah Viognier Monte da Ravasqueira Portugal

TROPHY SWEET

Hualande Eiswein Sekt Klassische Flaschengarung Jilin Hualande Vineyard Germany

TROPHY ICEWINE

Pillitteri Frozen Tundra Vidal Icewine Pillitteri Estates Winery Canada

TROPHY FORTIFIED

Samos Nectar Samos Greece

TROPHY SPARKLING WINE



Champagne Deutz Brut 샴페인 도츠 브뤼트

품종 삐노 누아 33.3%, 삐노 뫼니에 33.3%, 샤르도네 33.3% 빈티지 NV
와이너리 Champagne Deutz 국가 France 수입사 레뱅드매일

샴페인 도츠가 또 한 번 KWC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도츠는 브뤼트로 2009년, 2010년 연속 베스트 스파클링(당시 기준 트로피)을 수상하며 국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는 도츠 블랑 드 블랑으로 트로피를 수상하며 건재함을 알렸고, 올해 다시 브뤼트로 트로피를 수상하며 '과히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도츠는 1838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샴페인 하우스다. 당시 두 와인 머천트인 윌리엄 도츠(William Deutz)와 피에르 위베르 젤더만(Pierre-Hubert Geldermann)이 샴파뉴의 아이(Ay) 지역에 설립했다. 현재 6대째 와인 생산을 이어오며 도츠는 설립 초기부터 내세운 '신선함과 섬세함'이라는 메인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다. 세 가지 품종을 고루 블렌딩해서 만든 도츠 브뤼트는 도츠의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준다. 버블은 오래 지속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다. 또 청사과와 시트러스 향, 토스트 향이 담백하게 어우러진다. 경쾌한 산도와 섬세하게 이어지는 긴 여운도 클래식한 도츠의 매력을 보여준다.

Champagne
Deutz Brut Classic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TROPHY WHITE



Ravasqueira Reserva da Familia White 라바스케이라 레제르바 다 파밀리아 화이트

품종 비오니에 60%, 알바리뇨 40% 빈티지 2017
와이너리 Monte da Ravasqueira 국가 Portugal 수입사 루나

몬트 다 라바스케이라는 KWC 2019가 배출한 스타다. 이전에도 KWC에 참여하여 수차례 수상을 한 바 있지만 올해는 화이트와 레드 부문 트로피를 석권하며 명실상부 올해의 와인으로 우뚝 섰다. 트로피 2관왕을 차지하는 것도 이례적인 결과지만, 포르투갈 알렌테주 지역의 와인들이 국내에서 이처럼 주목 받은 일도 일찍이 없었다는 점에서 몬트 다 라바스케이라의 수상은 큰 의미를 지닌다.

몬트 다 라바스케이라는 리스본에서 1시간 떨어진 아라이올로스(Arraiolos)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와이너리로, 알렌테주의 지역 색을 잘 살린 와인을 빚는다. 그 중 파밀리아 레제르바 화이트는 몬트 다 라바스케이라의 정수를 보여준다. 비오니에 60%에 알바리뇨 40%를 블렌딩한 와인으로, 포도는 특정 구역에서 엄격히 선별했다. 이후 비오니에는 프렌치 오크통에서 알바리뇨는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각각 저온 발효했다. 시트러스 향과 미네랄 뉘앙스가 어우러지며 산미도 좋다. 유질감도 느껴지고 복합미가 좋은 와인으로 음식 매칭의 스펙트럼도 넓다.



TROPHY

ROSE



Domaine Montrose Rose 도멘 몽로즈 로제

품종 그르나슈 65%, 까베르네 소비뇽 25%, 시라 10% 빈티지 2018
와이너리 Domaine Montrose 국가 France 수입사 국순당

KWC 로제 와인 카테고리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심사위원들은 다채로운 매력의 로제 와인을 심사하며, 한식과 좋은 궁합을 보여줄 것 같은 드라이한 로제 와인을 트로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멘 몽로즈는 지중해에서 15km 떨어진 남프랑스의 페즈나(Pezenas)에서 빛깔 좋은 로제를 빚는다. 포도는 신선도를 위해 밤에 수확한다. 또한 과일 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15~18°C로 저온 발효하며, 품종과 떼루아의 특징을 살리기 위하여 개별 발효 후 블렌딩한다.

열은 핑크빛을 띠는 이 와인은 체리, 딸기, 멜론, 복숭아 같은 과일 향에 살짝 스파이스한 향을 풍기며 더욱 매력을 어필한다. 신선한 과일 풍미가 기분 좋으면서도 동글동글한 질감이 편하게 넘어가는 와인이다. 도멘 몽로즈 로제는 <Wine Spectator>에서도 88점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동일한 점수의 다른 로제 와인과 비교하면 가격대는 2~3배 저렴한 편이다. 북유럽에서는 로제 와인 중 판매 1위를 차지한 와인이기도 하다.



Domaine Montrose Rose



Ravasqueira
Syrah Viognier

TROPHY RED



Ravasqueira Syrah Viognier 라바스케이라 시라 비오니에

품종 시라 97%, 비오니에 3% 빈티지 2014
와이너리 Monte da Ravasqueira 국가 Portugal 수입사 루나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의 양조 철학은 엄격한 포도재배에서 시작된다. 1998년 설립 초기부터 이들이 가장 신경을 쏟았던 것은 '어디에 어떤 포도를 심고, 어떻게 재배하며, 언제 수확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포르투갈 알렌테주에서 시라에 소량의 비오니에를 블렌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도 몬뜨 다 라바스케이라만의 캐릭터를 보여준다. 이 북부 론 스타일의 블렌딩은 점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포르투갈에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다.

주품종인 시라는 빈하 다스 로마스(Vinha das Romãs) 구획에서 선별했고, 비오니에는 나무 한 그루당 포도송이 2개만을 얻었다. 소량의 비오니에가 첨가되었지만 농밀한 아로마가 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짙은 검붉은 색을 띠는 와인으로, 잘 익은 레드 과일과 후추, 타르 향에 약하게 복숭아와 살구 향도 난다. 미네랄 뉘앙스도 좋고 생동감 있는 산도와 잘 익은 탄닌은 훌륭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입안에 굴리면 가득 차는 바디감이 느껴지고, 모카, 커피, 비스킷 향이 더해지면서 복합미가 절정에 이른다.



TROPHY

SWEET



Hualande Eiswein Sekt Klassische Flaschengarung

화란덕 아이스바인 섹트 클래식 플라센가롱

품종 베타 빈티지 NV 와이너리 Jilin Hualande Vineyard
국가 Germany 수입사 화란덕와이너리코리아

중국 백두산의 포도와 독일 스파클링 와인 양조 기술이 만났다. 화란덕 와이너리는 장백산맥과 송눈 평야가 맞닿아있는 백두산 끝자락에 있다. 화란덕이 아이스와인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이 겨울에 영하 30°C까지 떨어지는 지대이기 때문이다. 포도는 주로 베타(Beta) 품종을 재배하며, 친환경 농법을 고수한다. 포도밭 관리는 독일의 와인 전문가가 맡고 있다.

이 화란덕 아이스바인 섹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바로 독일 섹트의 선구자인 SMW가 양조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이다. SMW는 독일에서도 영세한 와이너리들이 만든 1차 와인을 섹트로 완성시켜 주는데, 화란덕의 와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SMW의 대표이자 모젤와인협회 회장인 아돌프 슈미트(Adolf Shumitt)가 전 양조과정에 참여해 믿음을 준다. 이미 지난해 KWC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와인을 잔에 따르면 조밀한 기포가 잔잔히 올라온다. 석류와 레드 베리, 야생 허브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입안에서는 스위트한 맛에 이어 경쾌한 산도가 뒤따른다.



Hualande
Eiswein Sekt Klassische
Flaschengarung



Pillitteri Frozen
Tundra Vidal Icewine

TROPHY

ICEWINE



Pillitteri Frozen Tundra Vidal Icewine 필리터리 프로즌 툰드라 비달 아이스 와인

품종 비달 100% 빈티지 2016 와이너리 Pillitteri Estates Winery
국가 Canada 수입사 하이트진로

캐나다의 세계 3대 아이스 와인 생산국이다. 그 중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에 있는 필리터리 이스테이트 와이너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스테이트 아이스 와인 생산자다. 세계 아이스 와인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며, 10가지 포도 품종으로 아이스 와인을 빚는다. 필리터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포도를 재배했던 필리터리 가문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세운 와이너리이다. 1988년 실험적으로 양조했던 비달 아이스 와인이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계기로, 5년간의 투자를 걸쳐 1993년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이후 세계 최초로 까베르네 프랑과 세미용으로 아이스 와인을 생산하기도 했다.

프로즌 툰드라 비달 아이스 와인은 1월말 영하 8도 이하에서 언 포도를 수확하여 압착한 농축된 과즙으로 양조한 특별한 와인이다. 영롱한 금빛을 띠며, 복숭아, 파인애플, 오렌지, 리치 등 농축된 열대과일 향이 달콤하게 퍼진다.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훌륭해서 달콤함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긴 여운을 남긴다.



TROPHY FORTIFIED



Samos Nectar 사모스 넥타르

품종 위스카 빈티지 2011 와이너리 UWC Samos
국가 Greece 수입사 헬레닉와인

사모스는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섬 이름이기도 하다. 이곳의 포도밭은 98%가 위스카 품종으로 덮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사모스의 위스카로 빚은 농밀하고 달콤한 와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와인이었다. 사모스 섬에 있는 UWC 사모스는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협동 조합 중 하나로 오늘날 2,200여의 생산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사모스 넥타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고급스러운 와인으로 꼽힌다. 6년 간 오크 배럴에서 숙성을 거쳐 색은 짙은 호박색으로 깊어졌고, 와인 잔을 살짝만 흔들어도 오렌지, 건포도, 말린 과일, 꿀, 견과류의 향이 폭발적으로 피어난다. 입안에서도 달콤한 풍미는 이어져 자두와 구운 시나몬, 토피, 잘 익은 오렌지 향이 피어나간다. 한편 길게 이어지는 달콤한 풍미에 스모키한 향과 좋은 산도가 더해지면서 와인은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실크같은 질감에 묵직한 바디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피니시도 사모스 넥타르의 매력이다.



Samos Nectar